

나는 산골면장님

홍성군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산골이나 농촌마을에는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떠나고 대부분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도시가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농촌은 도시의 뿌리이며 영원한 고향이다. 이런 농촌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특별한 관심과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촌마을의 투자순위는 마을 안길 포장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실버계층을 위한 복지분야라고 생각한다.

내가 산골면장으로 부임하여 어느 날 관내를 순회하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내 손을 잡으며, "젊은 면장어른, 나 좀 도와주시구려." 하는 것이었다. 무엇을 도와주면 되느냐고 묻자, 쌀독에 쌀이 떨어졌다고 하면서 나를 쌀독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보여주었다.

자식들이 없느냐고 묻자, "삼 남매인데, 딸 하나는 시집갔고, 아들 하나는 본래 시원찮으며, 큰아들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매달 생활비를 보내줬는데, 아이엠에프인가 무엇 때문에 망해서 몇 달째 생활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였다.

나는 지금도 밥을 굶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정말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우리 면내에 이런 사람들이 또 있는지 파악해 보았다. 호적법 적으로 자녀가 없으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최저 생계비가 지원되는데, 실제로 생활에 도움을 전혀 주지 못하는 자녀를 둔 노인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나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면장으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겠는가 하고 고민하였다. 물론 나의 봉급을 털어서 한 번은 도와줄 수 있겠지만, 지속적이지는 못할 것이 아닌가.

나는 아이디어를 냈다. '사랑의 쌀통' 을 민원실에 설치하고 관내는 물론 출향 인사까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다. 이런 사실을 홍성군수가 알고 군내 전 기관단체로 확산시켜 주어서 한 해 동안 쌀3백 석 이상을 모아 어려운 가정에 나눠주었다.

옛날 심청이가 공양미 3백 석에 팔려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도 쌀3백 석은 작지 않은 숫자이다.

특히 한 홉 두 홉 절미하여 이웃을 위해 '사랑의 쌀통' 에 모아진 숫자로는 엄청나게 큰 양이다. 물론 이 사랑의 쌀통은 단순히 쌀을 나눠주는 것뿐만 아니라, 군민 서로간에 훈훈한 인정을 나눠 갖는 계기도 되었다.

나는 이 지면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면장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다리를 건설하고 도로를 포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실무직원이나 참모들이 관심을 갖는 것보다 각 지역의 책임자들이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따뜻한 사회가 될 것이다.

내가 아이디어를 낸 '사랑의 쌀통' 도 군수가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면 쌀 3백 석은 고사하고 몇십 가마도 힘들었을 것이다.

물론, 이런 뜻을 면장이 아닌 일반이나 직원들이 생각했다면 사회에 확산시키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듯 공공기관의 단체장들의 행정력은 좋은 쪽으로 사용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

나는 면장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노인계층을 위한 행정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에는 실버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에는 젊은 층보다 노인계층이 많이 살아가고 있다. 우리 인생은 누구든 늙지 않는 사람 없다.

'옛그제 청춘인가 했더니 어느덧 황혼이다.' 라는 얘기가 있든 모두 늙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옛날에는 늙는가 하면 죽음을 맞이하였는데 요즈음은 의학발달 등으로 노인으로 살

아가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노인계층에 대하여 우리 행정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한 가지 아이디어를 말한다면 산골이나 농촌에는 초등학교 학생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 폐교하는 학교가 늘고 있으므로 이것은 실버학교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학생처럼 학습프로그램을 설정하되, 예를 들면 운동, 물리치료, 레크레이션 등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노인이 되면 다시 아이가 된다’는 얘기가 있듯이 노인과 어린이는 같은 점이 많다. 시간이 많다는 점, 돈을 벌지 못하고 소일한다는 점, 재미있는 놀이를 좋아한다는 점 등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노인이 되면 다시 초등학교 같은 노인학교를 다니면서 시간을 유익하고 즐겁게 보내면 좋을 것이다.

아무튼 선진국에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모색해보면 노인들이 즐겁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한 관심으로 특히 농촌에 살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많은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차제에 내가 산골면장을 하고 있는 홍성지역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홍성을 단적으로 말한다면 정말 4천만이 살고 싶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탁 트인 서해바다가 인접해 있고 온천이 있으며 아름다운 작고 큰 산들이 주변에 있다. 또 서해안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있어 서울에서도 단숨에 달려올 수 있는 곳이다.

홍성군은 예로부터 충남 서부지역의 중심지로 나라가 위급할때마다 분연히 일어나 구국의 일념으로 혼신을 다한 충의열사들이 탄생한 곳이기도 하다.

우뚝 솟은 백월산과 맑은 서해안의 물결이 한눈에 안겨 들어와 펼쳐놓는 산자수명한 고장, 문화유적의 본고장이다.

홍성 땅은 오늘도 의기의 맥이 유유히 흐르고, 선조들의 기개와 숨결을 담아 빛은 역사가 조양문 등 42점의 문화재와 더불어 여기저기 살아 숨쉬는 충의 선비의 고장이기도 하다.

홍성이 배출한 구국 충의를 소개하면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를 보필한 집현전 학자로,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다가 순절한 사육신중의 한 분이며 만고의 충신인 매죽헌 성삼문 선생이 있다. 또 여진족과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막아내고 요동정벌로 민족의 자존을 드높이려 했으며 고려말 명장 무민공 최영 장군, 조선 불교유신론을 펼친 불학의 석덕이요 시인으로 문단의 거벽이자,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분으로 활약한 애국지사 한용운 선생이 있다.

1920년 독립군을 토벌하려던 일본군을 청산리에서 맞아 3천여명을 사살, 독립군 최대의 전과를 올린 독립군 총사령관 백야 김좌진 장군과 홍주의병을 일으켜 민족의 기개를 펼치고 파리평화회의에 조선독립을 호소한 독립운동가이며 호서유림의 대표적학자인 지산 김복한 선생 등 많은 구국선열들이 숨쉬고 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고장인 홍성의 관광코스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홍주의사총→최영, 성삼문 선생 생가지→용봉사, 마애석불, 용봉산장군봉, 병풍바위→조양문, 안회당, 홍주성→홍성온천(숙박)→김좌진장군생가지→한용운선생생가지→궁리방조제→남당항(펄펄 뛰는 바다회)→광천토굴 새우젓(특산품)→만해동상

서해안 시대의 중심지인 홍성을 방문하여 옛 선열들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용봉산에 올라 땀을 식히고, 남당리 바닷가에 가서 펄펄 뛰는 회를 먹고 난 후, 홍성온천에 몸을 담가보기 바란다.